

Case Report

## 荊防瀉白散을 활용한 소양인 陽毒發斑 치험 1례

박근희, 김오영, 박혜선<sup>1</sup>

<sup>1</sup>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교실

### The Case Report of Soyangin Yangdokbalban (陽毒發斑)

Geun-Hee Park, Oh-Young Kim, Hye-Sun Park<sup>1</sup>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

**Objectives:** This study reports using Hyungbangsabaksan to cure Soyangin Yangdokbalban (陽毒發斑) appealing Systemic Allergic Contact Dermatitis.

**Methods:** After diagnosing the patient showing Papuloerythematous with no blisters in the body as a Soyangin Yangdokbalban (陽毒發斑), we prescribed the patient with Hyungbangsabak-san. We compared the condition of the patient before and after medication with photo shots.

**Results:** After treatment, Papuloerythematous which was seen with the naked eye disappeared and various skin symptoms such as itching and warmth in the flare area also improved.

**Conclusions:** After treatment, the symptoms of the patient who after eating lacquer chicken showed improvement.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oyangin Yangdokbalban (陽毒發斑), Systemic Allergic Contact Dermatitis, Lacquer chicken, Hyungbangsabaksan

### 緒論

『東醫壽世保元』<sup>1)</sup>에서는 陽毒으로 인한 發斑症狀에 대하여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少陽人 에게는 石膏를 위주로 처방하고, 太陰人 에게는 葛根解肌湯과 黑奴丸을 처방으로 언급하였다.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에서는 少陽人 이 傷寒으로 熱多寒少한 병에 이환된 상태에서 췌고기 탕을 먹게하여 陽毒發斑에 이르게 된 증에 白虎湯을 처방하고 이후 排便 상태와 風이 動하는 상태를 보고 石膏 위주로 치료한 치험례를 언급하였다.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에서는 少陽人의 경우 背癰, 腦疽, 脣腫, 纏喉風, 咽喉病 등의 이환은 危險證으로 분류하고 陽毒發斑, 流注丹毒, 黃疸 등의 이환은 險證으로 분류하였으며 얼굴 눈 입 코 등까지 병이 진행된 상황은 重證으로 분류하여 少陽人 陽毒發斑의 병세를 설명하였다.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에서는 “面赤斑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등 陽毒病證의 특징을 설명하며 葛根解肌湯과 黑奴丸을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陽毒發斑이란 陽症으로 熱이 심하여 피부에 붉은 斑點이 생기는 病證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熱이 나며 얼굴 및 그 밖에 드러난 피부 부위

• Received : 20 June 2011

• Revised : 19 July 2011

• Accepted : 20 July 2011

• Correspondence to : 박혜선(Hye-Sun Park)

전남 목포시 상동 834번지,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 1진료실

Tel : +82-61-280-7901, Fax : +82-61-280-7788, E-mail : medic73@hanmail.net

Table 1. Medication Treatments

| Date(2010년)   |           | Prescripton(g)                                           |
|---------------|-----------|----------------------------------------------------------|
| 7월10일 - 7월12일 | 荊防瀉白散加味方1 | 生地黃 16, 茯苓 澤瀉 石膏 8, 羌活 獨活 荊芥 防風 知母 4, 黃連 黃芩 黃柏 梔子 3      |
| 7월13일 - 7월19일 | 荊防瀉白散加味方2 | 生地黃 16, 石膏 12, 茯苓 澤瀉 10, 羌活 獨活 荊芥 防風 6, 知母 黃連 黃芩 黃柏 梔子 4 |
| 7월19일 - 7월20일 | 荊防瀉白散     | 生地黃 12, 茯苓 澤瀉 8, 石膏 羌活 獨活 荊芥 防風 知母 4                     |

에 斑點, 丘疹, 잔물집, 딱지 등 皮疹이 발생하며 피부에 붉은 發疹과 熱感, 가려움 등이 주 症狀으로 나타난다<sup>2)</sup>. 이때 생기는 發疹은 紅色, 紫色 등으로 丘疹 부위에 熱感을 동반하게 된다. 이렇듯 陽毒發斑은 疫毒의 感受로 인해 나타는 熱性 피부질환 중 火熱이 熾盛한 상태로 피부 외부에 紅色, 紫色의 發疹과 熱感, 가려움을 주 증상으로 하며 현대의학에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과 유사성을 보인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전형적인 지연형 과민 반응, 즉 제4형 과민성 반응으로 특이항원을 인식하는 T림프구에 의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후천성이며 항원에 접촉되어 감각 된 후 재접촉 시에 증상이 유발된다. 일단 감각이 된 사람에게 항원이 재차 피부로 침투하면 기억세포가 이를 감지하여 여러 화학 매체를 분비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일차적인 주증상은 가려움증이며 초기에 灼熱感이 나타날 수 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주 변화는 표피에 나타나며 염증이 표재성으로 나타나므로 水疱가 생기고 터져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것의 전형적인 급성기 피부병변은 紅斑과 線上 또는 집단의 小水疱 및 水疱로 구성되며, 자극에 의해 水疱가 터지면 진물이 날 수 있다. 아급성기에는 수일이 지나 滲出物이 감소하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紅斑과 鱗屑이 나타난다. 만성기에는 鱗屑과 함께 병변이 건조해져 두터워지고 경우에 따라 苔癬化 되기도 한다. 급성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병변이 수일에서 수주 이내에 사라지며, 만성인 경우에는 접촉 후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되기도 한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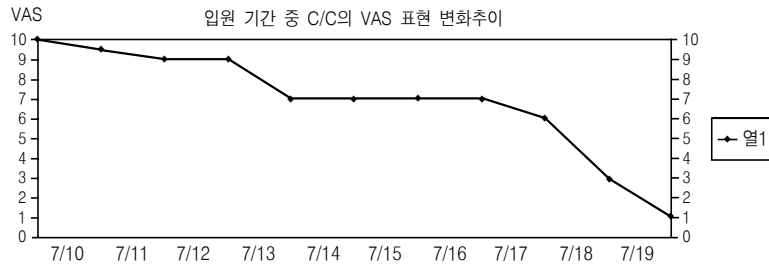
이렇듯 양방의 즉시형 과민반응에 의한 두드러기나 지연형 과민반응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한방의 陽毒發斑과 유사성을 보이는 병태로 상기

병증에 대한 韓方치료 역시 유효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정 음식물이나 향신료 등의 섭취 역시 외부 항원물질의 접촉으로서 면역 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옷담 섭취 후 全身紅斑, 丘疹, 發熱, 瘙癢感 등의 알레르기성 전신 접촉 피부염 증상 발생하여 피부과에서 근육 주사 처치 후 洋藥처방 치료 받았으나 상기 증상 심해지신 후 별다른 호전 없어 한방치료를 위해 ○○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체질의학과 외래로 내원한 환자분 있어 이를 少陽人 陽毒發斑으로 판단하여 치료하였다.

## 證例

1. 환자 : 김○○ (M/40)
2. 발병일 : 2010년 7월 6일
3. 치료기간 : 2010년 7월 10일 - 2010년 7월 20일 (11일)
4. 주소증 : 全身性 皮膚發疹, 丘疹, 紅斑(兩 臀部, 腰部, 兩 上肢 內側, 大腿 前後部, 사타구니), 全身 瘙癢感, 全身 發赤部位 熱感
5. 발병동기 : 옷담 섭취 후 C/C 발현
6. 과거력 : 別無
7. 가족력 : 別無
8. 현병력 : 上記 환자분 平素 흡연은 하지 않으며

Table 2. The Progress of Symptoms



1주일에 2병정도의 飲酒歷이 있는 원만한 성격의 보통 체격 남자분으로 平素 가리는 음식 없이 생활해 오시다가 2010년 7월 6일 옷달 섭취 후 全身의 皮膚發疹과 發疹部位 熱感, 癢痒感 증상 발현하여 피부과 근육 주사 처치 후 별다른 호전 없어서 2010년 7월 10일 본원 사상체질의학과에 내원하신 환자분 임

9. 체질소견

(1) 體形氣像

上記 환자 분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정의된 四焦를 기준으로 하여 제 1선(腋窩橫紋)과 제 2선(兩乳頭)이 제 3선(7, 8 肋軟骨 接合隆起部)과 제 4선(神闕穴)에 비해 더 길게 발달하여 體幹이 역삼각형의 형태를 띄며 대흉근의 橫升의 발달이 비교적 뚜렷하다.

(2) 容貌詞氣

안면에서 광대부분이 발달한 형태를 띄며, 눈꼬리

가 바깥으로 찢어진 모양이다. 전체적인 얼굴 형 또한 역삼각형의 느낌이 뚜렷하고, 미소 지을 때 광대가 비교적 도드라져 보인다.

(3) 性質才幹

목소리가 분명하고 현 증상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며 본인의 의견과 불만에 대해 加減없이 말한다. 본인의 기호에 대해 분명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10. 초진소견

- (1) 睡眠 : 평소 5-6시간 정도 수면 취하며 수면의 깊이가 얇고 수면 중 자주 깨며 수면 후 만족도가 낮음
- (2) 食慾 : 1일 3회 정상식욕
- (3) 消化 : 別無
- (4) 飲水 : 비교적 찬물을 선호하며 별컹별컹 마시는 편임
- (5) 面色 : 연갈색



Fig. 1. Frontal view of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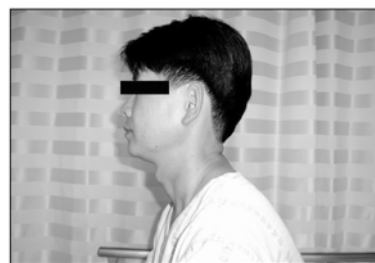


Fig. 2. Lateral view of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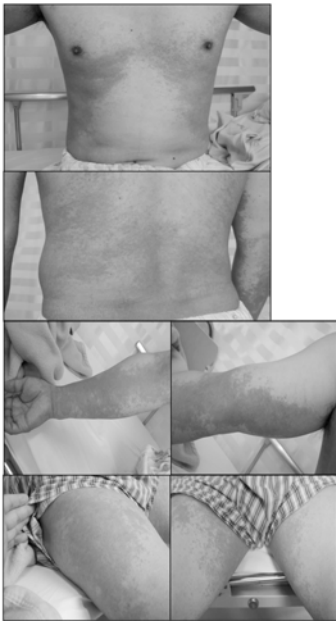


Fig. 3. Photograph of before treatment (2010. 7. 10.)



Fig. 4. Photograph of after treatment (2010. 7. 20.)

- (6) 發汗 : 땀이 잘 나지는 않음
- (7) 大便 : 1회 / 일
- (8) 小便 : 5-6회 / 일
- (9) 舌診 : 淡紅苔薄白
- (10) 脈診 : 浮數

## 11. 검사소견

- (1) Chest PA 상 : 정상소견
- (2) 혈액학검사 상(정상범위) :
  - WBC 14.3▲ (4.0-10.0) 단위  $10^3$
  - LYM 12.2▼ (20-40) 단위 %
  - NETU 78.6▲ (40-75) 단위 %
- (3) 생화학 검사 상 :
  - R-GTP 55▲ (5-52) 단위 IU/L
  - T-bilirubin 1.4▲ (0.1-1.2) 단위 mg/dL
  - T-Cholesterol 242▲ (140-240) 단위 mg/dL
- (4) 요 미생물 검사 상 : 정상소견

## 12. 치료

### (1) 鍼灸治療

침구치료는 직경 0.3mm, 길이 30mm 1회용 stainless 호침을 이용하여 사암침법의 肺正格인 太白(補), 太淵(補), 少府(瀉), 魚際(瀉) 등에 1일 1회 刺針하였고, 15분간 留針 하였다.

### (2) 韓藥治療

少陽人은 脾大腎小의 臟腑偏差로 水穀熱氣가 太過하기 쉽고 寒氣가 偏少하기 쉽다. 때문에 少陽人의 保命之主인 腎局의 陰清之氣가 大腸局의 寒氣를 채워주고 胃局으로 올라가 胃局의 熱氣 太過를 방지한 후, 背膂에서 膀胱局으로 表陰降氣 하여야 少陽人의 정상적인 生理循環이 완성된다.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 少陽傷風證의 경우 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寒熱往來 등을 호소하는 病證으로 陰清之氣의 大腸, 胃, 背膂, 膀胱 순의 순환 노선 중에서 背膂의 表陰降氣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는 腎局에 비해 脾局의 熱氣가 과하게 偏大한 病證으로, 背膂에서 表陰降氣 하지 못한 陰清之氣가 膀胱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脾黨이 가지고 있는 水穀熱氣를 둘러싸버

려 안은 뜨겁고 길은 찬 外寒包裏熱의 형태를 나타낸다.

上記 환자의 경우 脾大腎小한 臟腑偏差를 지니고 있는 少陽人으로 大熱한 음식인 옷담을 섭취한 후 全身發疹, 發赤, 瘙癢感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초진 시 전형적인 陽毒發斑證으로 생각하였으나 全身發疹, 發赤, 瘙癢感 등의 發斑 증상이 처음 발현된 이후 별다른 便閉 나타나지 않고 食慾 消化 역시 別無變化 하였다. 瘙癢感 이외에 주로 胸部 답답함, 발작적 上熱感, 咽喉部 異物感, 入眠困難, 淺眠의 수면 질 저하를 호소 하셨다. 저자는 옷담의 大熱한 성질이 脾局 熱氣의 偏大를 유발하여 外寒包裏熱의 형세를 갖추었을 거라 보고, 주 호소 증상인 胸部 답답함, 발작적 上熱感, 咽喉部 異物感의 증상들을 少陽人 脾受寒表寒病 少陽傷風證 重證의 부류로 보았다. 또한 發斑의 증상과 함께 뚜렷한 熱性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脾受寒表寒病에서 裏熱이 熾盛하여 胃受熱裏熱病으로 傳變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장차 大便이 秘結 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현재 便閉의 증상이 없으므로 陽毒白虎湯은 藥力이 過하다고 사료되어 荊防瀉白散을 처방하였다.

### 13. 치료경과

#### (1) 2010년 7월 10일

全身的인 피부 發疹이 있으며 주로 體幹과 兩上肢 內側, 兩大腿 前後部, 兩 종아리 부위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體幹의 發疹 분포는 少陽經을 따라 肋間과 肋下部에 주로 퍼져있으며 腹部 중앙부에는 보이지 않는다. 背部의 發疹 분포는 없으며 腰部와 兩臀部 上部까지 發疹과 瘙癢感이 있다. 兩上肢部の 發疹은 주로 內側 위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경계가 분명하여 붉은 빛의 發疹이 뚜렷하다. 하체에서는 주로 양 사타구니와 大腿 後部에 분포하여 있고, 양 종아리의 분포도 보인다. 환자분은 전신 發疹부위의 熱感和 瘙癢感으로 2010년 7월 6일부터 수면 불량을 호소해 오신 상태였으며 發疹 부위의 熱感 또한 심하게 호소하였다. 荊防瀉白散加味方(生地黃

16g, 茯苓 澤瀉 石膏 各 8g, 知母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 4g, 黃芩 黃蓮 黃柏 梔子 各 3g)을 1일 2첩, 3회씩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 (2) 2010년 7월 11일-12일

2010년 7월 10일 저녁부터 하루 3팩씩 탕약을 복용 후 환자분 大便양상의 변화를 예측하였으나 12일 까지 大便양상의 별다른 변화 없이 환자분의 胸部 답답함, 上熱感, 全身熱感, 不安感 등의 증상은 완화 되었으나 全身發疹, 瘙癢感 등의 증상은 처음에 비해 VAS9 정도로 감약하여 호전 양상이 더디었다. 이에 大便양상 상 石膏를 더 투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荊防瀉白散加味方의 石膏를 12g으로 增量하였고, 藥力이 역시 病勢에 비해 약하다고 판단하여 구성 약물을 少量씩 增量하여 처방하였다(첨당 茯苓 澤瀉 各 10g,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 6g, 黃芩 黃蓮 黃柏 梔子 各 4g).

#### (3) 2010년 7월 13일-18일

13일부터 荊防瀉白散加味方(石膏 12g)을 복용하였으며 환자분 13일 부터 전신의 가려움 증상 VAS7정도로 경감 되고 胸滿, 不安, 수면불량 증세는 눈에 띄게 완화 되었으며 全身發疹과 發赤 양상도 치료 초기에 비해 發赤된 發疹의 색깔이 옅어지며 發疹 부위의 熱感 역시 감소하였다. 13일부터 18일까지 꾸준히 石膏 12g으로 增量된 荊防瀉白散加味方을 복용하였으며 복용 중 泄瀉 등의 大便양상 변화 없이 매일 1회의 排便을 하였다.

#### (4) 2010년 7월 19일-20일

2010년 7월 18일 저녁부터 上記 피부 發疹, 發赤, 瘙癢感의 증상 급격히 완화되기 시작하여 瘙癢感의 경우 18일 저녁 VAS6, 19일 오전 VAS3정도로 경감하였으며 19일 오전 피부의 發疹과 發赤은 눈에 띄게 감약 되어 丘疹은 사라지고 붉게 변화되어 경계가 뚜렷하던 發赤은 연분홍색으로 일반 피부색과 비슷한 정도로 완화되었고, 경계가 모호해졌다. 20일 오전 上記 모든 증상 VAS1이하로 경감 되시고

瘙痒感도 사라져, 20일 荊防瀉白散(첩당 生地黃 12g, 茯苓 澤瀉 各 8g, 羌活 獨活 荊芥 防風 知母 石膏 各 4g) 2첩 복용을 끝으로 치료를 종결하였다.

**考察 및 結論**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옷을 식용과 약용으로 민간에서 널리 이용해 왔다. 봄나물을 먹는 계절에는 옷순 무침, 옷순 튀김, 옷순 나물 등을 먹었고, 보신용 또는 별미 요리로 옷 나무 껍질이나 가지를 삶은 물에 닭 뿐만 아니라 오리, 염소 등을 고아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옷을 식용으로 섭취해 왔다. 옷나무과(*Anacardiaceae* family)는 전세계 약 70속, 600여종이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분포하고, 일부가 북반구 온대 지역에 자라고 있다 이들은 강력한 항원을 함유하고 있어서 모든 다른과의 식물보다 훨씬 많은 빈도로 피부염을 일으킨다. 옷나무속(*Rhus* 속)은 약 250종이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6종으로 덩굴옷나무(*Rhus ambigua*), 검양옷나무(*Rhus succedanea*) 산검양옷나무(*Rhus sylvestris*), 개옷나무(*Rhus trichocarpa*), 옷나무(*Rhus verniciflua* 일명 참옷나무), 붉나무(*Rhus chinensis* 일명 오배자 나무)가 자라고 있다. 옷나무는 잎사귀, 줄기, 씨, 꽃, 뿌리에 우유 같은 액즙을 함유하고 있으며 공기 중에 노출되면 黑色의 水液으로 변한다. 이것을 흔히 漆이라고 하는데, 주요성분은 수분, 우루시올(*Urushiol*), 다당류, 당단백질, 라카아제(*Laccase*) 등이다. 이들 성분 중에서 도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루시올인데, 일반적으로 옷산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옷칠의 주성분인 우루시올은 *catechols*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의 *pentadecylcatechol* 이 주 알레르겐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sup>4)</sup>.

上記 환자의 경우는 보신용으로 옷을 삶은 물에 닭을 고은 옷닭을 먹은 후 血行性으로 전신적인 피부염이 나타난 환자이다. 이러한 경우는 이전의 외부 접촉으로 감작이 일어난 상태에서 항원을 경구로 섭취해 항원이 전신 투여된 것으로, 체내에 흡수된 알레르기 항원이 혈류를 통해 피부에 도달하여 발생

한 알레르기성 전신 접촉 피부염으로 보인다.

우루시올이 화학적으로는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지만, 피부세포와 결합하는 경우 T-cell 매개 면역반응(제4형 지연형 과민성 반응)을 일으켜 發赤, 浮腫, 丘疹, 水疱 등의 알레르기성 습진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는 피부 위에 맑은 액체로 가득한 직경 1-2mm 정도의 작은 水疱들이 나타나며, 흡수된 우루시올에 의한 發疹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증세가 2-3주 지속된다. 發疹이 계속되는 기간에도 새로운 병변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 새로 생겨난 병변들은 더 심한 반응으로 나타난다<sup>5)</sup>. 上記 환자의 경우는 항원의 경구 섭취로 인한 혈행성 전파로 주로 體幹과 兩上肢 內側, 兩大腿 前後部, 兩 종아리 부위의 전신적인 紅斑과 丘疹이 보이며 水疱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體幹의 紅斑 분포는 少陽經을 따라 肋間과 肋下部에 주로 퍼져있으며 腹部 중앙부에는 보이지 않고 兩上肢部의 紅斑은 주로 內側 위주로 퍼져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紅斑은 경계가 분명하며 붉은 빛의 發疹이 뚜렷하다. 또한 손가락이나 손목 등에는 紅斑, 丘疹 등이 나타나지 않았고 눈꺼풀이나 口脣 등 顔面部 또한 紅斑이나 浮腫 증상은 동반되지 않았다.

石膏는 주로 含水黃酸鈣鹽( $CaSO_4 \cdot H_2O$ )을 함유하고 있는 黃酸鹽類에 속한 광물인 천연의 石膏(*Gypsum*)를 말한다. 辛甘, 大寒하며 肺, 胃 二經에 들어가 辛味는 散하고 大寒은 淸熱하여 肺胃의 火를 淸게하고 退熱生津하며 除煩止渴하므로 肺痿氣分の 實熱을 淸解하는 要藥으로 사용한다. 古人은 “斑은 陽明熱毒으로 因하고 疹은 太陰風熱로 因한다”고 하여 斑疹을 發하는 病은 모두 肺胃의 鬱熱과 관계가 있고 石膏는 肺胃氣分の 熱을 淸解하고 涼血解毒하기 때문에 邪熱이 鬱肺한 發疹과 邪熱이 營血까지 파급된 發斑에 사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6)</sup>.

李濟馬는 少陽人이 熱多寒少한 증에 꿩고기 탕 섭취 이후 나타난 陽毒發斑에 白虎湯을 처방하였고 복용 이후 排便 상태와 風이 動하는 모습을 보고 石膏를 위주로 치료하였다. 상기 환자 역시 옷닭이라는 熱性에 가까운 음식을 섭취 후 발생한 發斑으로

上記 환자의 素證과, 容貌詞氣, 性質才幹을 보고 少陽人으로 판단하였다.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에서는 少陽人의 경우 陽毒發斑證을 險證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덧붙여 얼굴, 눈, 입, 코 등까지 병이 나타나면 重證으로 분류하였다. 上記 환자의 경우 주로 體幹과 兩上肢 內側, 兩大腿 前後部, 兩종아리 부위의 전신적인 紅斑과 丘疹이 나타났으며 水疱는 발생하지 않았고 體幹의 紅斑 분포는 少陽經을 따라 肋間과 肋下部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거나 얼굴, 눈, 코, 입 등에 紅斑과 浮腫은 보이지 않아 少陽人 陽毒發斑 중에서도 重證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少陽人篇』『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에는 陽毒發斑의 治療方으로 陽毒白虎湯(石膏 5錢或1兩, 生地黃4錢, 知母 2錢, 荊芥 防風 牛蒡子 各 1錢)을 제시하였으며 “治陽毒發斑便秘者 宜用”이라하여 便閉를 처방의 사용기준으로 언급하였다. 上記 환자의 경우 少陽人으로 大熱한 음식인 옷닭을 섭취한 후 全身發疹, 發赤, 瘙癢感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초진 시 전형적인 陽毒發斑證으로 생각하였으나 全身發疹, 發赤, 瘙癢感 등의 發斑 증상이 처음 발현된 이후 별다른 便閉 증상 없이 瘙癢感으로 인한 수면 질 저하와 胸部 답답함, 발작적 上熱感, 咽喉部 異物感 등을 주로 호소 하셨다. 저자는 옷닭의 大熱한 성질이 脾胃 熱氣의 偏大를 유발하여 外寒包裏熱의 형세를 갖추었을 거라 보고 위의 胸部 답답함, 발작적 上熱感, 咽喉部 異物感의 증상들을 少陽人 脾胃受寒表寒病 少陽傷風證 重證의 부류로 보았다. 또한 發斑의 증상과 함께 뚜렷한 熱性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脾胃受寒表寒病에서 裏熱이 熾盛하여 胃受熱裏熱病으로 傳變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장차 大便이 秘結 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현재 便閉의 증상이 없으므로 陽毒白虎湯은 藥力이 過하다고 사료되어 荊防瀉白散을 처방하였다. 이후 3일간 上記 처방 복용으로 별다른 排便양상의 변화 없이 매일 배변하였고, 부증상인 胸部 답답함, 上熱感, 不安感 등의 증상은 완화 되었으나 전신 紅斑, 丘疹, 瘙癢感, 發疹 부위 熱感 등의 주 증상은

VAS9정도로 호전 양상이 더디었다. 石膏 복용 이후 泄瀉나 무른 便으로 移行 등의 변화를 예상 하였으나 排便양상의 변화없이 少陽人 환자의 熱性 증상들은 여전하므로 現증상에 비해 處方의 藥力이 약하다고 판단하여 上記 처방의 石膏를 淸당 12g으로 增量하였고, 구성 약물을 少量씩 증량하여 복용케 하였다(淸당 茯苓 宅舍 各 10g,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 6g, 黃芩 黃蓮 黃柏 梔子 各 4g). 처방 복용 후 翌日 上記 피부 紅斑, 瘙癢感 증상 VAS7 정도로 완화 되고, 紅斑의 역시 감약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치료 9일 차까지 石膏 淸당12g씩 복용하였으며 매일 1회의 정상변 排便을 하였다. 치료 9일차 제반 피부 증상들 급격히 완화되기 시작하여 瘙癢感의 경우 치료 9일차 VAS6, 치료 10일차 VAS3으로 경감하였고, 피부의 熱感은 소실되고, 경계가 뚜렷하던 紅斑은 연분홍색의 일반 피부색과 비슷한 정도로 완화되었다. 이후 치료 11일차 제반 증상 VAS1이하로 경감되어 20일 荊防瀉白散(淸당 生地黃 12g, 茯苓 澤瀉 各 8g, 羌活 獨活 荊芥 防風 知母 石膏 各 4g) 2첩 복용을 끝으로 치료를 종결하였다.

少陽人이 熱性 음식인 옷닭 섭취 후 나타난 陽毒發斑 경우를 少陽人 脾胃受寒表寒病 少陽傷風 重證에서 胃受熱裏熱病으로의 傳變 과정 중에 있다고 판단하여 荊防瀉白散을 복용 시켰으며 石膏 복용 중에도 排便양상 변화 없이 陽毒發斑의 호전을 경험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參考文獻

1. 李濟馬 著 東醫學研究所 譯. 東醫壽世保元(개정판). 서울:여강출판사. 2000.
2. 東醫學辭典 編纂委員會. 新東醫學辭典. 서울:여강출판사. 2003;728.
3. 정종영, 한경환. 한국의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서울:MDworld medical book Co.,Ltd. 2008; 20-21,28,32,34.
4. 정종영, 한경환. 한국의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서울:MDworld medical book Co.,Ltd. 2008;119-

(530) 대한한의학회지 제32권 제4호 (2011년 7월)

121,125.

5. 정종영, 한경환. 한국의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서울:MDworld medical book Co.,Ltd. 2008;124,

127-128.

6. 韓醫科大學 本草學 編纂委員會 編著. 本草學. 서울:圖書出版 永林社. 2004;202.